

유통·화장품 한 주 파악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불 붙는 유통가 '속도전'...새벽배송에서 30분 배송까지(뉴시스 2018.12.16)

유통업체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커머스가 시작한 '빠른 배송' 서비스 경쟁이 오프라인 유통업체까지 번지는 모양새. 16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커머스과 대형마트 등은 갈수록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시함. 전날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새벽에 받는 서비스에 이어 3시간, 30분짜리 배송서비스까지 등장하는 상황. 쿠팡이 로켓배송에 이어 내놓은 서비스는 새벽배송. 우유, 달걀, 과일, 정육, 수산물 등 약 5000종의 신선식품을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이전까지 받아 볼 수 있음. 매일 장을 보는 게 힘든 직장인이나 아이엄마들을 겨냥한 서비스로 쿠팡은 새벽배송을 공산품 등 일반상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 업계 관계자는 "상품 자체의 변별력이 거의 없다 보니 이제는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장소로 배송하느냐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배송시간을 단축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쟁이 잘 정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

美에이본, 해외 화장품 회사 최초로 'K-뷰티' 제품 러시아에서 론칭 (글로벌이코노믹 2018.12.16)

미국 화장품 회사 에이본(Avon)은 내년 초 유럽에서 K-뷰티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15일(현지 시간) 밝힘. 해외 화장품 기업이 한국 화장품 'K-뷰티' 제품을 론칭한 것은 에이본이 처음. 에이본은 내년 초 유럽에서 K-뷰티 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러시아에서 스킨케어 제품과 핸드크림 등 K-뷰티 제품을 선보일 예정. 에이본의 한 수석 과학자는 "K-뷰티 제품의 매출이 2020년까지 13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세계 4위 규모인 스킨 케어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그는 또 "에이본이 지닌 세계적 수준의 경험과 K-뷰티제품의 최신 트렌드가 결합해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며 "K-뷰티 제품은 혁신적인 기술 경쟁력이 있고 이는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로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에이본의 사명과 일치한다"고 덧붙임. 이미 아시아를 넘어 미주, 유럽 등 해외에서 입증된 K-뷰티의 글로벌 콘텐츠는 제품의 우수성과 한류스타 마케팅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데 이어 해외 화장품 기업이 눈독을 들이는 글로벌 브랜드로 특화되고 있음.

롯데마트, '중·소형 매장'으로 북베트남 공략한다(머니투데이 2018.12.16)

롯데마트가 중·소형 매장을 앞세워 본격적인 베트남 유통 시장 공략에 나선. 그 동안 남베트남에 집중됐던 출점 전략에서 벗어나 북베트남까지 매장 확대에 나설 계획.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내년부터 베트남에서 3,305㎡(1000평) 규모의 중형 매장과 330㎡(100평)의 소형 매장을 오픈함. 이를 통해 현재 13개인 베트남 매장을 2020년까지 총 87개까지 늘릴 계획. 중형 매장의 경우 매장 면적은 대형마트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되 상품 수는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감. 베트남 고객들이 다양한 상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로, 모바일 배송 서비스인 '스피드L'의 거점으로 사용할 방침. 주요 출점 지역은 북베트남이 될 전망. 현재 13개 베트남 매장 중 11개가 남쪽에 몰려있지만, 북쪽에는 하노이센터점과 동다점이 전부.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중·소형 매장으로 하노이시를 중심으로 북베트남을 공략하겠다는 것. 롯데마트 관계자는 "경제 도시로 상업 시설이 집중된 남베트남과 달리 북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남베트남처럼 대형마트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중·소형 매장으로 북베트남을 공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망.

웅진씽크빅, 코웨이 지분 인수 위해 950억 단기차입 결정(비즈니스포스트 2018.12.14)

홈쇼핑 '빅3'가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로 경쟁에 나설지 주목됨. CJ ENM과 GS홈쇼핑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홈쇼핑은 뒤늦게 차 판매에 뛰어드는 분위기. 금융투자업계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음. 홈쇼핑 업체들의 자동차 판매를 두고 전체적인 매출 규모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고객 트래픽 유입 정도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업체들의 내년 격전로 자동차 시장이 떠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곳은 CJ ENM. CJ ENM 오쇼핑 부문은 오는 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협업해 재규어의 SUV '이페이스(E-PACE)'를 판매할 예정.

신동빈 복귀 후 첫 임원인사 롯데... "안정이나 변화냐"(아시아타임즈 2018.12.13)

신동빈 롯데 회장의 복귀 후 첫 인사 단행이 임박했다. 이번 인사는 롯데가 경영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큰 틀에서 안정에 방점을 놓은 상태에서 일부 변화를 추구 하는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됨. 12월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20일부터 23일 사이 중 사장단을 포함한 2019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임. 전통적으로 롯데의 임원인사가 매년 이사회 이후 실시된 만큼 이번에도 발표될 공산이 큼. 그간 롯데그룹이 성과주의 기반해 인사를 단행한 만큼 실적이 계속해서 신통치 않은 계열사는 물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됨.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실적 부진을 겪은 롯데쇼핑의 강희태 대표와 이동우 하이마트 대표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 또 여성임원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신 회장의 약속이 지켜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2020년까지 여성 CEO를 배출하고 간부사원 중 여성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고 전함. 실제로 지난해 롯데는 그룹 사상 처음으로 여성 CEO로 선우영 립스 대표를 배출한 바 있음. 롯데가 새로운 먹거리로 지목한 온라인 사업인 e커머스본부의 파격적인 인사도 점쳐짐. 현재 롯데쇼핑 e커머스본부의 대표이사는 전무급으로 이를 부사장급으로 격상시킬 것이라는 전망.

알리바바 마윈 "무역전쟁 끝나도 복잡한 중미관계 20년 간다"(연합뉴스 2018.12.13)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휴전'을 선언하고 다시 협상에 나선 가운데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이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 13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마 회장은 전날 홍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중미 무역마찰은 20년 동안 형성된 양국 간 무역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힘. 마 회장은 "무역전쟁이 끝나도 중미 양국 간의 복잡한 관계는 20년 지속할 것"이라며 "시장은 반드시 이에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지적.

업종코멘트(12/17-12/21)

유통, 화장품: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아르바이트생을 주요 인력으로 이용하던 업종들은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한 대응에 들어가고 있음. 2019년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보다 820원 늘어난 8,350원.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16.4% 상승한데 이어 2019년에도 10% 정도 인상됨.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체들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인력 조정을 준비 중.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무인 매장 테스트 및 이커머스 전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국내 기관의 저가매수 횡보가 이어짐. 4분기 중국과 국내에서 최저점을 벗어나고 있으며 3분기까지 일회성 비용을 마무리 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국내외 업종 지수 및 Peer 종목군 주가 상승/하락률

지수	증가(p)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069.38	-0.31%	롯데쇼핑	6.90	4.18	2.98	GS리테일	7.10	7.24	13.19
KOSDAQ	666.34	-2.77%	현대백화점	2.73	0.11	4.68	코웨이	0.40	-3.57	4.85
유통업	398.11	1.15%	신세계	-4.29	-11.86	-8.06	아모레퍼시픽	10.62	8.70	16.46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5.19	-6.41	-5.93	LG생활건강	1.67	-0.17	0.61
KRW/USD	1,124.00	0.55	롯데하이마트	-2.09	-6.20	-7.79	코스맥스	2.68	-1.47	4.28
KRW/JPY	989.44	-0.26	CJ오쇼핑	-2.98	-9.23	-2.67	한국콜마	1.56	-4.82	8.49
KRW/CNY	163.65	0.73	현대홈쇼핑	1.01	0.20	7.41	토니모리	-3.95	-11.31	7.52
			엔에스쇼핑	3.91	4.72	13.19	잇츠스킨	1.15	-7.38	-0.94
			GS홈쇼핑	-3.85	-4.14	-5.35	클리오	20.09	8.27	17.52
			BGF리테일	6.19	5.91	21.53	코스메카코리아	0.97	-7.13	-6.16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0.4	-0.8	-1.7	노드스트롬	1.0	-0.2	-4.7	텐센트	-1.4	-5.9	-6.0
로레알	-0.8	-1.7	-1.6	맥스&스펜서	-3.0	-17.1	-21.3	알리바바	-3.1	-2.4	-5.4
에이본프로덕츠	-11.1	-16.5	-16.9	다카시마야	-1.5	-8.1	-4.6	JD닷컴	-0.9	-5.3	-15.7
상해자화	7.8	11.2	6.1	이온 몰	-6.7	-10.0	-9.5	VIP샵	2.4	-6.1	-14.7
크리스찬디올	1.3	2.0	-0.3	세븐&홀딩스	-3.3	-6.2	-18.2	스타트투데이	-0.6	-1.0	6.3
P&G	4.5	2.3	3.0	아마존	-4.0	-7.6	-10.5	이베이	-2.7	-7.4	-3.3
고세	0.6	1.0	-8.4	월마트	-0.8	-1.4	-2.6	메르카도리브레	5.9	4.4	-3.8
에스티로더	-1.4	-5.2	-6.1	테스코	-2.3	-5.8	-0.1	라쿠텐	2.1	-8.0	-9.1
LVMH	1.0	-0.2	-4.7	타겟	-1.4	-5.9	-6.0				
ULTA	-3.0	-17.1	-21.3	까르푸	-3.1	-2.4	-5.4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에이본 프로덕츠	상하이 자화	크리스찬 디올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현재가(현지통화)	7,164.00	204.30	1.77	29.60	334.60	96.64	17,100.00	135.18	251.95	246.85
시가총액(백만USD)	25,285	129,375	783	2,878	68,256	240,770	9,143	49,050	143,814	14,641
매출액 (백만USD)	2016 7,840	27,578	5,718	890	43,721	65,058	2,468	11,824	41,617	4,855
	2017 8,964	29,400	5,716	953	49,330	66,832	2,738	13,683	48,167	5,885
	2018 9,724	30,357	5,547	1,053	53,242	66,736	2,954	14,339	53,211	6,698
	2019 10,508	32,060	5,363	1,236	56,905	68,767	3,140	15,260	57,284	7,499
영업이익 (백만USD)	2016 339	4,342	322	37	7,874	13,955	362	1,692	7,638	655
	2017 717	5,079	273	54	9,263	13,711	437	2,052	9,169	785
	2018 1,070	5,517	264	93	N/A	14,355	521	2,416	11,339	853
	2019 1,279	5,947	259	121	N/A	15,184	565	2,669	12,349	982
순이익 (백만USD)	2016 296	3,438	-108	30	1,952	15,326	200	1,249	4,406	410
	2017 203	4,046	22	58	2,531	9,750	276	1,108	5,794	555
	2018 670	4,510	49	75	3,125	11,433	334	1,799	7,313	656
	2019 826	4,826	64	96	3,445	12,024	359	1,980	7,972	748
PER (배)	2016 36.8	31.5	68.5	90.4	20.3	33.7	26.5	26.0	22.9	41.0
	2017 95.6	27.1	37.1	63.6	24.4	19.0	41.5	31.6	24.0	26.1
	2018 38.0	28.9	41.2	38.0	22.0	22.0	25.8	27.8	19.7	22.7
	2019 31.0	27.0	11.4	30.2	20.0	20.6	24.0	25.1	18.1	19.4
ROE (%)	2016 8.2	12.9	N/A	3.7	16.0	27.8	13.9	31.4	15.7	27.4
	2017 5.6	14.5	N/A	7.3	18.2	18.3	17.6	24.4	18.6	33.4
	2018 17.4	15.2	N/A	8.9	20.2	22.5	19.4	38.2	20.7	35.2
	2019 19.0	15.2	N/A	10.5	19.9	22.2	18.5	43.5	20.0	37.7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 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물	세븐& 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현재가(현지통화)		48,61	263.40	1,548.00	1,886.00	4,873.00	1,591.91	91.85	192.90	67.17
시가총액(백만USD)		8,134	5,379	2,428	3,785	38,116	778,394	266,848	23,741	35,052
매출액	2016	14,757	13,882	7,962	2,496	42,978	135,987	485,873	74,106	69,495
(백만USD)	2017	15,478	14,194	7,960	2,587	43,162	177,866	500,343	75,382	71,879
	2018	15,966	13,121	8,206	2,793	58,519	232,464	514,151	80,655	75,702
	2019	16,394	13,166	8,417	2,953	60,489	280,119	529,696	82,457	77,655
영업이익	2016	805	331	314	416	3,372	4,186	22,764	1,348	4,969
(백만USD)	2017	926	208	317	442	3,516	4,106	20,437	2,409	4,312
	2018	931	729	274	474	3,669	12,269	21,943	2,623	4,132
	2019	988	716	310	517	3,942	17,578	21,629	3,049	4,227
순이익	2016	354	153	193	264	895	2,371	13,643	-53	2,737
(백만USD)	2017	437	34	212	274	1,626	3,033	9,862	1,581	2,934
	2018	615	511	179	290	1,886	13,451	13,678	1,650	2,884
	2019	640	512	202	315	2,191	17,917	13,640	2,031	2,910
PER	2016	13.6	46.8	16.9	13.8	40.2	152.7	15.4	234.6	12.7
(배)	2017	16.9	168.9	16.1	16.7	21.8	256.6	24.1	16.9	15.5
	2018	13.5	10.5	13.4	13.2	20.1	58.5	19.0	13.9	12.4
	2019	12.9	10.5	11.9	12.2	17.4	44.7	19.3	11.6	12.0
ROE	2016	40.7	3.5	5.1	8.3	4.1	14.5	17.2	-0.5	22.9
(%)	2017	47.3	0.8	5.6	8.4	7.6	12.9	12.7	14.3	26.0
	2018	54.7	14.1	4.5	8.5	8.6	26.2	14.5	10.4	23.7
	2019	49.2	14.2	4.9	8.5	9.3	25.2	18.5	11.2	23.5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까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JD닷컴	VIP샵	스타트 투데이	이베이	메르카도 리브레	라쿠텐
현재가(현지통화)		14.93	308.80	149.00	22.17	5.31	2,544.00	28.91	326.52	845.00
시가총액(백만USD)		13,312	376,364	386,235	37,181	3,520	6,996	27,835	14,760	10,696
매출액	2016	87,843	22,880	23,531	38,895	8,522	706	8,979	844	7,209
(백만USD)	2017	92,207	35,223	37,825	53,678	10,802	888	9,567	1,398	8,424
	2018	87,744	45,546	56,742	65,707	12,190	1,165	10,737	1,429	9,616
	2019	89,515	59,001	75,970	79,447	13,491	1,439	11,280	1,973	10,825
영업이익	2016	2,190	7,971	7,145	-188	408	243	2,325	181	735
(백만USD)	2017	786	12,540	10,476	-124	399	295	2,265	56	1,342
	2018	2,044	14,754	8,499	-530	420	308	2,922	-76	1,336
	2019	2,341	16,653	13,655	-94	492	404	3,100	37	909
순이익	2016	826	6,188	6,493	-573	307	158	7,266	136	354
(백만USD)	2017	-600	10,594	9,687	-23	289	182	-1,016	14	986
	2018	840	11,171	12,594	351	388	215	2,288	-38	910
	2019	1,033	13,609	16,694	742	432	283	2,384	28	544
PER	2016	21.6	38.7	47.1	N/A	22.2	45.1	18.1	47.5	42.5
(배)	2017	N/A	44.5	44.8	N/A	23.8	43.9	30.4	197.1	12.9
	2018	15.5	32.5	29.2	103.7	9.3	32.6	12.6	N/A	11.1
	2019	13.0	27.4	22.8	52.4	8.3	24.6	11.1	491.0	18.8
ROE	2016	7.4	27.9	17.6	-11.8	43.9	72.7	84.9	35.5	5.7
(%)	2017	-5.2	33.2	19.9	-0.4	19.5	57.4	-10.9	3.7	16.2
	2018	6.5	26.9	15.8	-0.6	13.8	62.3	31.7	-17.8	13.2
	2019	8.0	24.2	18.0	0.4	12.9	67.2	34.3	8.9	7.5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